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다의어 동사 ‘eat’과 ‘먹다’에 대한
어휘유형론적 연구



2020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박 선 현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다의어 동사 ‘eat’과 ‘먹다’에 대한 어휘유형론적 연구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박 선 현

박선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8월 28일



목 차

Abstract	iv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5
2.1 다의어와 어휘유형론	5
2.2 어휘유형론의 연구 절차 및 방법	6
2.2.1 의의 구분하기	6
2.2.2 의의들 간 연결하기	9
2.2.3 어휘의미지도 그리기	12
III. ‘eat’과 ‘먹다’의 어휘의미지도	14
3.1 EAT의 언어외적 기준연결망	14
3.1.1 {몸으로 들여옴} : to put something into the body	16
3.1.2 {줄어들} : to have less	17
3.1.3 {얻음} : to gain	19
3.2 ‘eat’과 ‘먹다’의 의미지도	20
3.2.1 의의들의 공통점	23
3.2.2 의의들의 차이점	25
IV. 결 론	33

참고 문헌	35
참고 사전	37
코퍼스 사이트	37



표 목 차

<표 1> 영어 ‘straight’의 의의	7
<표 2> 불어 ‘droit’의 의의	7

그림 목차

<그림 1> 영어 ‘straight’와 불어 ‘droit’의 의의 겹침(overlapping)	8
<그림 2> h의 기능적 특성에 기초한 의의들 간 연결	11
<그림 3> OPEN의 기능적 특성에 기초한 의의들 간의 연결	12
<그림 4> ‘open’의 의미지도	13
<그림 5> EAT의 언어외적 기준연결망	15
<그림 6> 영어 ‘eat’의 어휘의미지도	21
<그림 7> 한국어 ‘먹다’의 어휘의미지도	22

A Lexical Typological Study of the English Verb ‘eat’ and the Korean Verb ‘mekta’

Sun Hyun Park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nglish verb ‘eat’ and its corresponding Korean verb ‘mekta’ in the framework of Lexical Typology proposed by François (2008). It shows the semantic network of EAT based on the ontological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each sense and the empirical observations, and present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emantic maps of the two verbs.

In English ‘eat’ colexifies all the senses related to ‘to have less’ and some parts of ‘to put something into the body’, but in Korean ‘mekta’ only colexifies parts of the senses related to ‘to gain’ and some of ‘to put something into the body.’ That means the senses of Korean ‘mekta’ and English ‘eat’ are different. This study is designed to see how similar and different the two languages are with respect to the senses of the verbs.

This study also suggests two things. One is that it is more effective in the description of the transitive verbs to make the semantic maps of the verbs using the central sense rather than using the specific sense. The other is that the central sense of the verb is very important to study something common as well as different in languages. This result could help the language learners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s of the verb ‘eat.’

I. 서론

어휘는 각 나라와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휘는 유추(analogy)로 인해 다양한 의미로 의미적 전이(semantic shift)가 나타나 다의어(polysemy)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개별 언어의 의미적 전이는 일정한 한계의 범위로 제한되고 따라서 언어의 보편성(semantic universals)이 유지된다. 유형론적 연구에서 문법과 관련된 언어들 사이에 문법적인 변이가 무한하거나 무작위적이지 않고 한정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Haspelmath, 2003). 나아가 François(2008)는 어휘 연구에서도 보편성(universals)과 유형론적 경향성(typological tendency)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François(2008)가 제시하는 연구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영어의 동사 ‘eat’과 한국어 대응표현인 ‘먹다’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다의어를 ‘eat’으로 선정한 이유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어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영어의 ‘eat’과 한국어의 ‘먹다’는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세 가지 예문을 살펴보겠다.

- (1) a. He eats a hamburger for lunch.
b. 그는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는다.

- (2) a. The acid ate away the metal.
b. 이 산이 금속을 *먹었다/침식했다.

- (3) a. She *ate/won first prize in a painting competition.
b. 그녀는 그림대회에서 1등을 먹었다.

예문 (1a)에서 영어 ‘eat’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먹다’로 표현한다. 하지만 (2a)에서는 ‘eat’이 ‘침식한다’라고 표현되어야 어색하지 않다. 또한 (3a)에서는 영어 ‘eat’이 사용될 수 없고, ‘won’이 사용되어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1a)와 (2a)에서 영어 ‘eat’은 ‘햄버거’와 ‘금속’과는 연어(collocation)¹⁾ 관계를 이룬다. 반면에 예문 (3a)에서 한국어 ‘먹다’는 등급을 나타내는 ‘1등’과 연어 관계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햄버거’의 경우는 영어 ‘eat’과 한국어 ‘먹다’와 연어 관계를 이루지만, ‘금속’의 경우는 한국어 ‘침식한다’와 그리고 ‘1등’의 경우에는 영어 ‘win’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렇게 연어 관계를 이루거나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François(2008)의 용어로 ‘eat’과 ‘먹다’의 공어휘화(colexification)²⁾하는 의의(sense)³⁾가 각각 다르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한국어 ‘먹다’는 왜 ‘금속’과 공어휘화하지 않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François(2008)가 제시한 어휘유형론(lexical typology)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영어 동사 ‘eat’과 한국어 대응 표현인 ‘먹다’를 비교 분석

1) 연어(collocation)란 담화 상에서 두 개 이상의 어휘, 즉 단어가 빈번하게 함께 사용되는 현상을 지칭한다(김윤정, 2005).
2) 공어휘화(colexification)란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의의(sense)들을 동일한 어휘 형태로 연관 지을 수 있을 때 그 의의를 공어휘화 한다고 표현한다.
3) 의의(sense)란 사전에서 하나의 단어 아래에 기술된 각각의 의미들을 뜻한다.

하여 두 동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왜 어떤 의의들은 ‘eat’과는 공어휘화 하지만, ‘먹다’와는 공어휘화를 하지 않는지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다. 첫째, 영어 동사 ‘eat’와 한국어 동사 ‘먹다’를 François(2008)가 제시하는 어휘유형론의 입장에서 두 가지 언어 동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어휘를 학습할 때 영어와 한국어를 일대일(예를 들어 ‘eat’을 ‘먹다’로 외우는 방법)로 암기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동사 ‘eat’을 학습할 때 ‘eat’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8종류(Cambridge, Collins, Dictionary, Longman, Macmillan, Merriam-Webster, Oxford, The Free Dictionary)의 영영사전과 네이버 사전(동아출판, 옥스퍼드, YBM에서 발행)과 다음 사전의 한영 사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한국어 동사 ‘먹다’는 네이버 국어사전(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이용하였다. 또한 Corpus에서 ‘eat+명사’ 연어를 100개 추출하여 ‘eat’의 목적어 연어를 자료로 삼았다. 따라서 ‘eat’의 동사에서 자동사는 제외하고 타동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먹다’는 ‘값아 먹다’, ‘굶어 먹다’ 등 굳어진 표현은 제외하고 ‘먹다’만을 연구로 삼았다.

참고로 앞으로 언급할 EAT을 대문자로 표기 한 것은 개념(notion)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개별 언어의 언어 형태와는 상관없다. 개별 언어의 동사를 지칭할 때는 ‘eat’으로 표기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으로 보는 어휘유형론의 연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eat’와 ‘먹다’의 어휘의미지도를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eat’과

‘먹다’의 동일한 목적어 연어가 영어와 한국어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룰 이론적 배경이 되는 Francois(2008)의 어휘유형론(Lexical Typology)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1 다의어와 어휘유형론

단어(word)의 본성에 관해서는 꾸준히 논쟁이 있었다. 이에 관한 두 가지 이론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단의미접근법(monosemism approach)으로 다의적인 어휘 단위가 고유한 일반의미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글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다른 의미는 그 핵심의미와 특정 발화상황에서의 화용적 쓰임이 합쳐진 결과로 보는 견해이다. 두 번째는 다의미접근법(polysemous approach)으로 많은 의미를 포괄하는 인위적인 하나의 일반의미를 정해둘 필요 없이 의미들을 의미단계에서부터 독립적인 특성으로 본다는 견해다.(Geeraerts 1993; Nerlich 2003; Riemer 2005)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어휘유형론(Lexical Typology)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François(2008)가 제시하는 어휘유형론(Lexical Typology)에서는 다의어에 대한 어휘연구 방면에서 언어 간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서 다수의 의미(sense)의 명시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어휘유형론의 관점에서는 다의어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적 견해를 취하더라도 하나의 단어에 다양한 의미를

구성하는 여러 의의(sense)를 명시적으로 나열해 봄으로써 언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의의들의 본질은 자세한 내적 성분(internal component)이 나타나도록 다의적 의미망(polysemous network)을 기술하는 방법을 알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서 단의미적 접근법으로 판단되는지 다의미적 접근법으로 판단되는지는 후차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François(2008)가 제시하는 어휘유형론의 연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어휘유형론의 연구 절차 및 방법

다음은 François(2008)가 제시하는 연구 절차와 방법이다. François(2008)가 주장하는 연구 방법에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의의(sense)를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 구분한 의의들 간에 의미적으로 가까운 의의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휘 의미지도를 그려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해당 연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2.2.1 의의 구분하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François(2008)는 어휘유형론의 분석 대상은 단어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는 어휘의 의의(sense)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François(2008)가 영어 동사 'straight'와 불어에서 대응하는 표현인 'droit'을 예로 들면서 왜 어휘 유형론에서 의의 분석이 앞

서 선행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자. 아래 표에는 영어 동사 ‘straight’에 해당하는 의의들과 불어의 대응 표현인 ‘droit’에 해당하는 의의들이다.

구분	의의	예	구분	의의	예
1	<rectilinear>	a straight line	5	<heterosexual>	gay or straight
2	<frank>	straight talking	6	<undiluted>	straight whisky
3	<honest>	a straight guy	7	<directly>	straight to the point
4	<classical>	a straight play	8	<immediately>	straight away

<표 1> 영어 ‘straight’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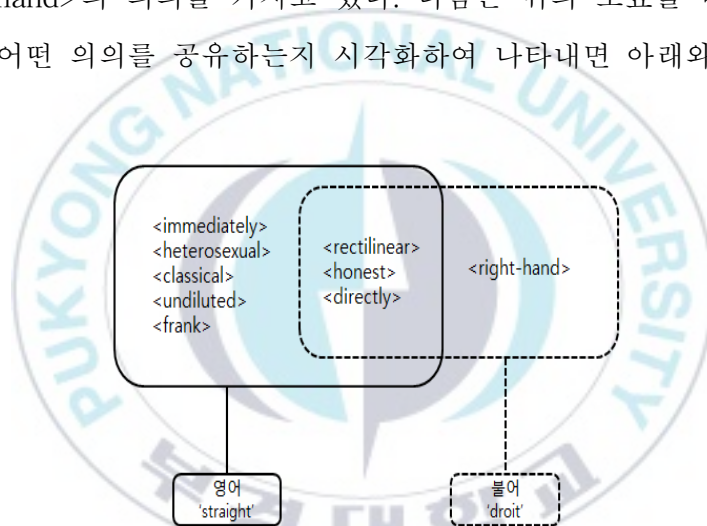
구분	의의	예	구분	의의	예
1	<rectilinear>	un trait droit	3	<directly>	aller droit au but
2	<honest>	un type au but	4	<right-hand>	le côté droit

<표 2> 불어 ‘droit’의 의의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영어 동사 ‘straight’의 의의에는 <rectilinear>, <frank>, <honest>, <classical>, <heterosexual>, <undiluted>, <directly>, <immediately>가 있다. 또한 <표 2>에서는 불어 동사 ‘droit’의 의의에는 <rectilinear>, <honest>, <directly>, <right-hand>가 있다. 이처럼 영어 동사 ‘straight’와 불어 동사 ‘droit’는 각각 그 의의(sense)에서 조금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의미접근법(monosemist approach)에서 영어 동사 ‘straight’의 의의(sense)중에서 포괄적인 핵심의미를 찾고, 불어 동사 ‘droit’의 의의(sense) 중 포괄적인 핵심의미를 찾아 비교하면 두 단어의 의미가 거

의 흡사하기 때문에 두 단어의 상이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두 단어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비교할 두 단어의 의의(sense)의 관점을 이용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다. 영어 ‘straight’와 불어 ‘droit’의 공통된 의의는 <rectilinear>, <honest>, <directly>이다. 그리고 영어 ‘straight’는 추가로 <frank>, <classical>, <heterosexual>, <undiluted>, <immediately>의 의의를 가지고 있고, 불어 ‘droit’는 추가로 <right-hand>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위의 도표를 바탕으로 두 언어가 어떤 의의를 공유하는지 시각화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영어 ‘straight’와 불어 ‘droit’의 의의 겹침(overlapping)

위의 도표에서도 살펴봤듯이, 언어 간의 어휘비교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단어를 의의(sense)로 다양하게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어의 의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 할 수 있을까? 많은 종류의 사전에 다양한 의의들이 있다. 하지만 사전에 제시된 의의들만으로는 어휘 유형론(lexical typology)적인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사전에 제시된 의의의 수나 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또한 사전이 실제로 언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쓰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휘유형론에서는 의의를 분류하여 구분할 수 있을까? 대상이 되는 단어의 의의 구분은 보편적으로 초반에는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대부분 의존하며, 초기에 연구자가 의의를 구분함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은 추후에 실증적 관찰(empirical observation)에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François(2008)에 따르면 공어휘화란 주어진 언어에서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의의들이 똑같은 어휘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François(2008)는 어휘유형론에서 의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언어에서 나타나는 공어휘화, 즉 의의들 간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2.2.2 의의들 간 연결하기

영어 문장 'He opened the tumbler/beer bottle.'와 같이 'open'은 'beer bottle'나 'tumbler'와 연관 시킬 수 있다. 그 말인즉슨 단어 'open'으로 공어휘화한다. 그와 달리 한국어로는 '그는 텀블러/*맥주병을 열었다.'와 같이 하나의 단어 '열다'로 공어휘화하지 않는다. 예로 '맥주병'은 '따다'와 더 잘 어울리고 언어 사용자는 더 많이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영어의 관점에서는 '맥주병'과 '텀블러'는 모두 'open'하는 대상이 됨으로 그 기능적 차이가 명백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어의 관점에서는 '맥주병'과 '텀블러'는 각각 '열다'와 '따다'의 대상이 됨으로 그 기능적 차이가 드러난다. 이처럼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의의의 구분은 분석대상이 되는 언어의 공어휘화 여부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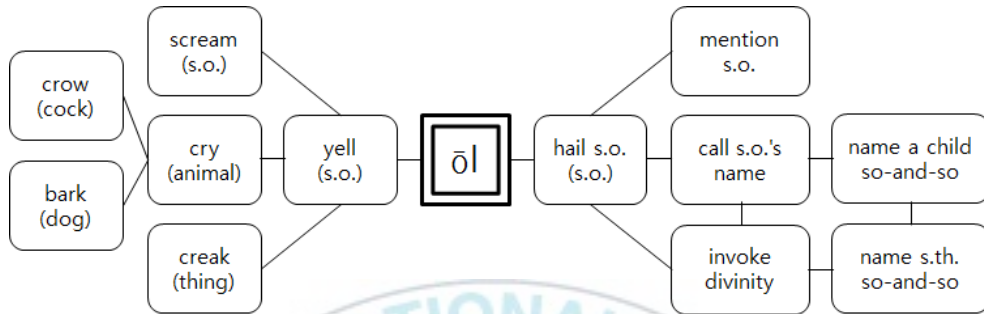
어휘유형론은 언어 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의를 François(2008)의 단어보다 조금 더 작은 의미단위나 Fillmore and Akins(2000)의 용법(uses)과 같은 조금 느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할 것이다. 김은일(2017)은 목적어의 특성이 타동사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의의를 명명했다. 본 연구에서도 의의를 명명함에 있어서 각 의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목적어 연어나 그 특성을 < > 속에 넣어 표시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중심의의는 대분류로써 { }로 나타내고, 목적어 연어는 < >로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François(2008)의 어휘유형론의 두 번째 단계인 의의들 간 연결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François(2008)에 따라 첫 단계에서 구분한 의의를 의미적으로 가까운 것끼리 분류한 후, 가까운 의의들끼리 그룹으로 묶고 의미적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결선으로 나타내어 다의어망(polysemous network)을 시각화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된다. 이 때 의의 중 의미적으로 가까운 정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그 의의(sense)의 기능적 혹은 존재론적 특성을 참고하는 것이다. François(2008)와 김은일(2017)은 존재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의를 분석하고, 의의들 연결하였는데 아래에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우선 François(2008) 경우에 Mwotlap어 동사 ‘hi’의에서 ‘hi’은 <bark>, <call s.th. such-and- such>, <creak>, <crow>, <hail s.o.>, <invoke a divinity>, <mention s.o.’s name>, <name a child so-and-so>, <scream>, <yell>와 같은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의의를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공통된 의미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최고조의 높은 소리를 내는 것은 <yell>, 인간이 내는 것은 <scream>, 동물이 내는 것은 <crow>와 <bark>, 물체가 내는 것은 <creak>로 의의를 나타낸다. 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사회적 행동은 <hail s.o.>, <invoke a divinity>, <mention s.o.>과 같은 의의로 분류되고,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워주는 행위는 <name a

child so-and-so>는 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기능과 존재론적 특성을 분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각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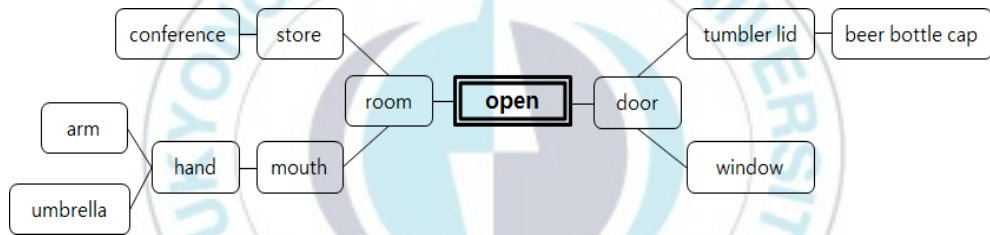


<그림 2> ㅇ의 기능적 특성에 기초한 의의들 간 연결

김은일(2017)의 예를 인용하여 설명해보겠다. ‘open’의 목적어 연어에는 ‘arm, beer bottle cap, conference, door, hand, lock, mouth, room, store, tumbler lid, umbrella, window’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나열만으로는 의의들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해당 의의들의 존재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의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여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세 그룹—‘공간자체’를 의미하는 {room}, ‘여닫는 장치’를 의미하는 {door}, ‘잠금장치’를 의미하는 {lock}—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간자체’를 의미하는{room}을 살펴보면, <store>, <mouth>는 공간을 의미하므로 여기에 포함된다. <conference>는 추상적 이지만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store>와 가깝다. <hand> 는 신체 부위란 점에서 <mouth>와 가깝다. <hand>는 오프러서 내부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arm>보다 <mouth>에 더 가깝다. <arm>과 <umbrella>는 다른 의의들과는 다르게 내재적인 내부공간이 없고, 다시 접고 펴고 한다는 점에서 <hand>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여닫는 장치’를 의미하는 {door}를 살펴보면, <tumbler lid>와 <beer bottle cap>은 모두 액체를 담은 용기 뚜껑이란 점에서 <window>보다는 더 가깝고 <tumbler lid>는 <beer bottle cap>에 비해 반복적으로 여닫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door>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후 의의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관련된 의의들끼리 가까운 정도로 연결하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존재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의를 분류한 François(2008)와 김은일(2017)의 의의들 간의 연결하기를 참고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3> OPEN 의 기능적 특성에 기초한 의의들 간의 연결

첫 번째 단계에서 의의를 분류하는 것과 같이 의의의 관련성을 분석할 때도 연구자들은 본인의 직관에 의존하여 의의의 존재론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가 진행될 때에는 개별언어의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François(2008)의 어휘유형론의 마지막 단계인 어휘의미지도 그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2.3 어휘의미지도 그리기

어휘유형론에서 마지막 단계는 어휘의미지도를 그려 그 공통점과 차

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문법 유형론을 위해 François(2008)는 Haspelmath(2003)이 체계화한 의미지도를 어휘유형론(lexical typology)의 의미지도(semantic map)에 활용하였다. 그에 따르는 어휘유형론의 의미지도는 언어외적 기준 연결망과 언어내적 범주화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외적 기준 연결망이란 단어의 기능적 특성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직관과 실증적 검증 단계를 거쳐 의의를 구분하고, 의미적 관련성이 밀접한 것 끼리 의의를 구분하여 분류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의미망을 말한다. 언어내적 범주화란 연구자가 연구한 언어외적 기준연결망에서 개별 언어의 어휘가 포함하는 의의와 그렇지 않은 의의들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그림 4>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일부분이 한국어 ‘열다’로 공어휘화하는 의의들이다. 언어외적 기준 연결망과 언어내적인 범주화가 그려진 ‘open’ 어휘의미지도를 그리면 완전한 형태의 의미지도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다.



<그림 4> ‘open’의 의미지도

어휘유형론에서 의의를 구분하고 의의들 간의 의미적 관련성이 가까운 것 끼리 연결하는 어휘의미지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영어 동사 ‘eat’와 한국어 ‘먹다’의 의미지도를 François(2008)의 세 단계 연구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나타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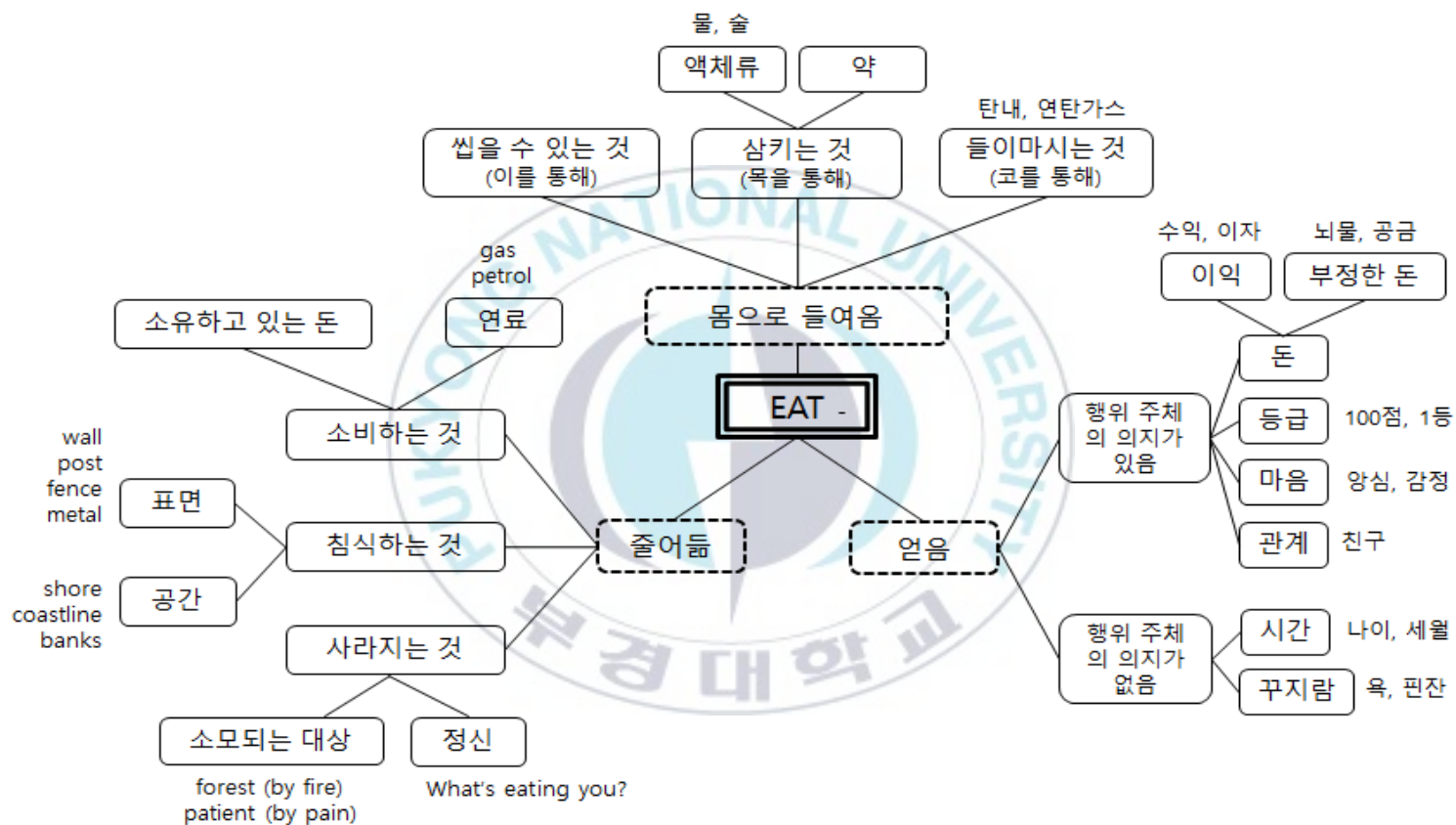
Ⅲ. ‘eat’과 ‘먹다’의 어휘의미지도

3.1에서 EAT의 언어외적 기준연결망을 자세히 보고, 3.2에서는 ‘eat’과 ‘먹다’의 언어내적 범주화를 비교해보고 두 동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3.1 EAT의 언어외적 기준연결망

영어와 한국어 사전, 그리고 Corpus에서 ‘eat+명사’ 연어를 100개 추출하여 ‘eat’의 목적어 연어를 분석한 후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EAT의 중심 의의(sense)는 {몸으로 들여옴}, {줄어들}, {얻음}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음 그림에는 EAT의 목적어 연어의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한다. 그 후에 의의를 구분하고, 의미적으로 연관된 의의들끼리 그룹으로 나누고 가까운 의의들끼리 연결시켜서 EAT의 언어외적 기준연결망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그림 5>⁴⁾을 살펴보도록 하자.

4) <그림 5>에는 중심의의와 그 의의들의 예시 단어들이 각각의 의의 옆 또는 위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 EAT의 언어외적 기준연결망

EAT을 {몸으로 들여옴}, {줄어듦}, {언음} 중심의의로 하여 이들과 의미적으로 관련된 의의들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의의들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술이고, 나중에 다른 언어들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3.1.1 {몸으로 들여옴} : to put something into the body

{to put something into the body}는 주체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동작을 통해 몸의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중심의의에서 어느 신체를 통해서 몸 내부로 어떤 동작에 의해서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즉, <씹을 수 있는 것>, <삼키는 것>, <들이마시는 것>으로 나뉜다.

1) <씹을 수 있는 것>

먼저 <씹을 수 있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eat’의 개념바탕에는 ‘씹어서 먹는 과정이 있다’(이기동, 2005)는 것을 상기해 보면 ‘eat’이 씹는 과정의 모든 의의들과 공어휘화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씹을 수 있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배치한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영어와 한국어에서 <씹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언어내적 범주화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과 같은 일정한 형태로 이루어진 대상을 치아로 잘게 부수는 것을 뜻한다.

2) <삼키는 것>

<삼키는 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삼키는 것>은 액체류나 약을 입에 넣어서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다. 이는 다시 물이나 술과 같은 액체를 목구멍으로 넘기는 <액체류>와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몸속에 섭취하는 <약>로 나눌 수 있다. <삼키는 것>의 대상들은 한국어 ‘먹다’만 공어휘화를 이루는 어휘들이다. 따라서 <medicine>은 ‘take’로, <drink>의 대상은 동사 ‘drink’로 표현한다. <drink>는 한국어 ‘먹다’로 공어휘화 하지만, ‘마시다’로 표현된다.

3) <들이마시는 것>

<들이마시는 것>은 공기나 냄새 따위를 코로 빨아들여서 기체를 몸 안에 들여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 사전적 정의에 ‘기체의 흡입’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의 ‘먹다’와는 잘 어울리지만 영어의 ‘eat’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의의이다.

3.1.2 {줄어들} : to have less

{to have less}는 행위 주체가 먹는 행동을 통해 음식물을 몸으로 넣음에 따라 그 음식물의 양이 점차 줄어들며,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따라서 음식물 입장에서는 그 대상물을 소비하여 줄어들고 결국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크게 3 가지-즉, <침식하는 것>, <사라지는 것>, <소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 이 의의들과 관련된 의의들에 대해 살펴보자.

1) <침식하는 것>

<침식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범위나 세력 따위가 점점 줄어들어 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목적어의 대상은 다시 돌이나 해안가의 침식을 나타내는 딱딱한 대상 또는 나무 등을 뜻하는 <표면>과 <공간>으로 나뉜다. 한국어에서는 ‘침식하다’, ‘부식하다’로 표현한다. 즉, 이 의미는 한국어 ‘먹다’와 공어휘화 하지 않는다.

2) <사라지는 것>

<사라지는 것>의 의미는 어떤 대상의 모양이 망가지거나 양이 줄어들거나 끝내 없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사라지는 것>의 대상에는 <소모되는 대상>과 <정신>이 있다. <소모되는 대상>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래의 상태가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어서 모양과 상태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은 온전한 상태가 점점 고갈되어 없어져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뜻한다. 이 역시 한국어 ‘먹다’와 공어휘화 하지 않는다.

3) <소비하는 것>

<소비하는 것>의 의미는 돈이나 시간, 물자,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소비하는 것>의 대상은 <소유하고 있는 돈>, <연료>가 있다. 첫 번째, <소유하고 있는 돈>은 본인이 지배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나타낸다. 두 번째, 동력(動力)의 에너지를 얻고자 연소시키는 재료로써 <연료>가 있다. 이 연료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사용하는 양이 많아 낭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의 예로는 <gas>, <petrol>등이 있다.

3.1.3 {얻음} : to gain

{얻음}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하게 되거나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행위 주체의 의지가 있음>, <행위 주체의 의지가 없음>으로 나눌 수 있다.

1) <행위 주체의 의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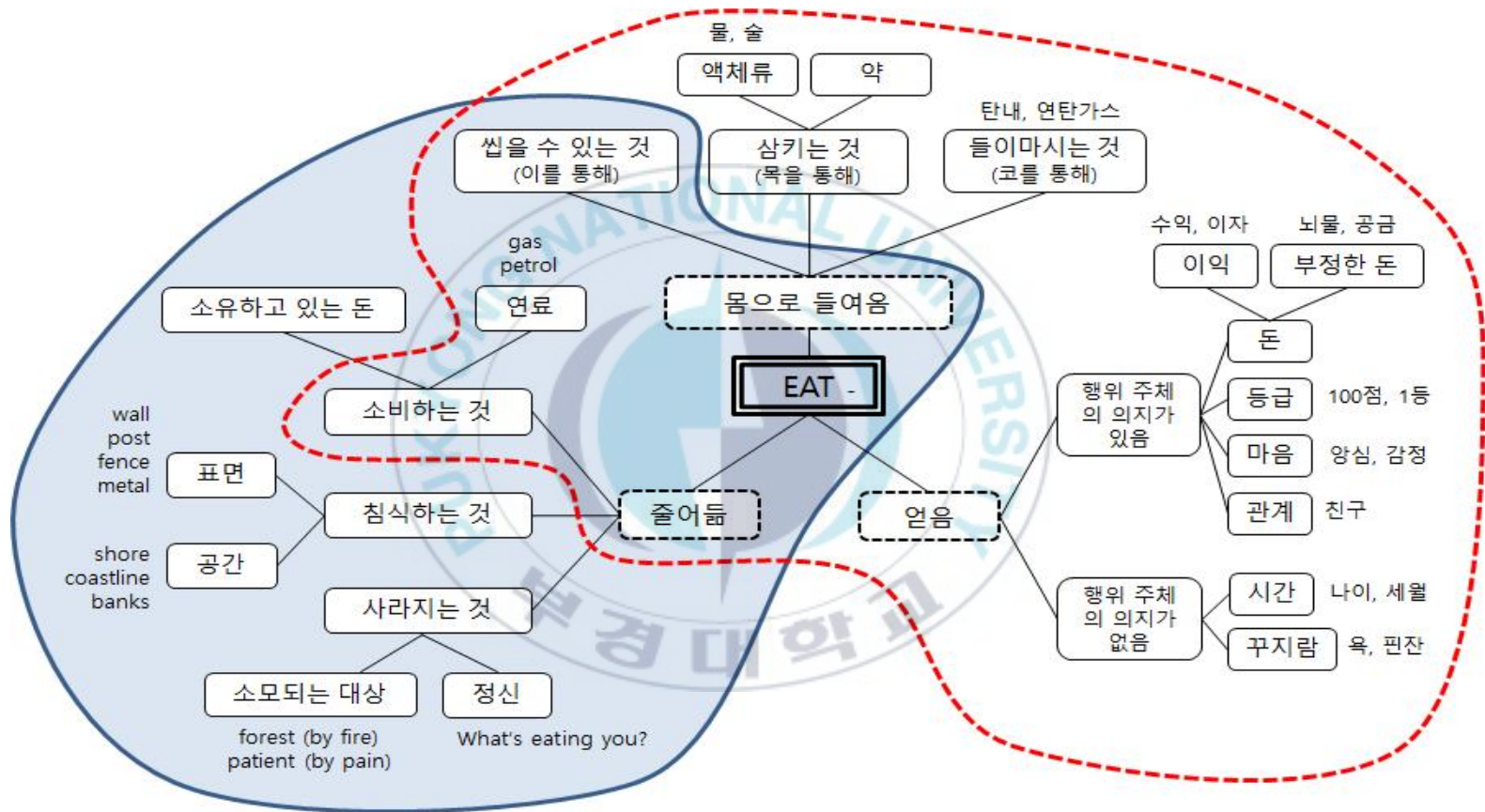
<행위 주체의 의지가 있음>의 대상에는 <돈>, <등급>, <마음>, <관계>가 있다. 첫째, 경제활동의 대가인 <돈>은 다시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이익>과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공적인 일이 아닌 곳에 이용하기 위하여 던지시 건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돈>으로 나뉜다. 이는 영어의 ‘eat’과 공어휘화 하지 않는다. 둘째, <등급>은 어떤 등급을 차지하거나 점수를 따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점수, 합격, 등급에는 일등과 같은 것을 나타내며, 영어에서는 주로 ‘receive’, ‘get’ 등의 동사가 사용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먹다’로는 잘 어울리지만, 영어의 ‘eat’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셋째, 새로운 마음이나 생각 등 내재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마음>이 있다. 주로 본인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없던 감정을 새로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관련이 있거나 관련을 맺을 때 나타내는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친구를 먹다’의 경우 어떤 사람을 친구라는 관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관계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돈>, <등급>, <마음>, <관계>는 모두 한국어 ‘먹다’만 공어휘화 한다.

2) <행위 주체의 의지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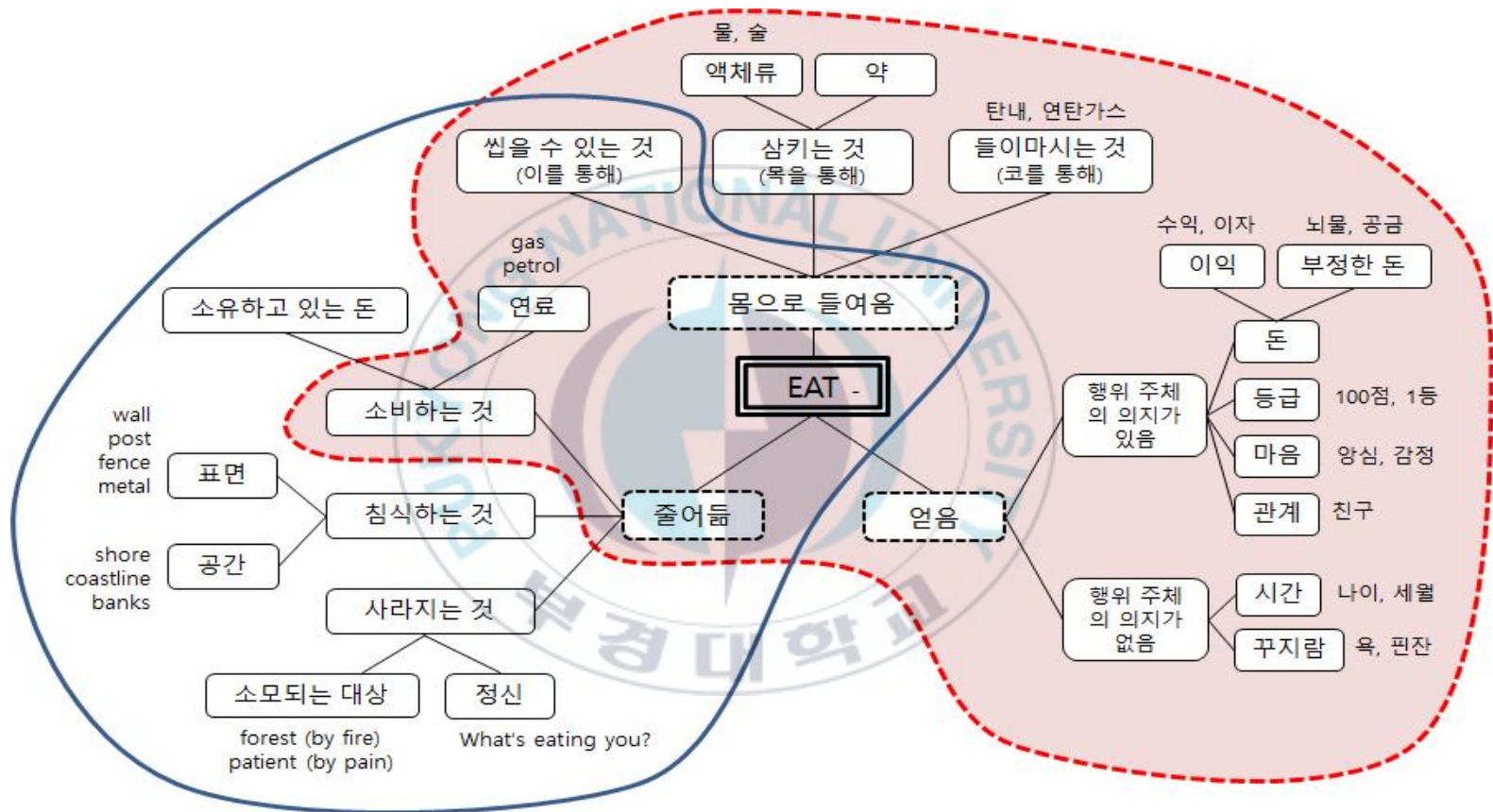
<행위 주체의 의지가 없음>의 대상에는 <시간>, <꾸지람>이 있다. 첫째, <시간>은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는 것을 뜻하며, <시간>의 대상에는 <나이>와 <세월>도 먹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인 개념을 대상화한 <나이>와 <세월>은 주체의 의지 없이 사람이 먹는 것을 뜻하며,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국어 ‘먹다’에만 공어휘화 한다. 둘째, <꾸지람>은 아랫사람이 잘못을 하여 윗사람이 꾸짖는 말을 뜻한다. <꾸지람>의 대상에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을 뜻하는 <욕>, 비꼬아 꾸짖거나 맞대어 놓고 언짢게 꾸짖는 것을 뜻하는 <편잔>이 있다.

3.2 ‘eat’과 ‘먹다’의 의미지도

지금까지 살펴본 EAT의 언어외적 기준연결망에 ‘eat’과 ‘먹다’로 공어휘화되는 의의들을 나타낸 어휘의미지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6> 영어 'eat'의 어휘의미지도



<그림 7> 한국어 '먹다'의 어휘의미지도

<그림 6>과 <그림 7>에서 ‘eat’과 ‘먹다’의 어휘의미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에 있어 실선은 ‘eat’의 공어휘화를 나타낸 것이고, 점선은 ‘먹다’의 공어휘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공어휘화 하는 부분은 음영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6>과 <그림 7>의 의미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공어휘화하는 의의들이 다르다. ‘eat’과 ‘먹다’ 모두 공어휘화하는 의의들에는 {몸으로 들여옴}에 해당하는 의의들 중 <씹을 수 있는 것>과 {줄어들}에서 <소비하는 것>중에서도 <연료>가 해당한다. 그리고 영어 동사 ‘eat’만 공어휘화하는 의의에는 <연료>를 제외한 모든 의의(sense)들이 해당된다. 반면에 한국어 동사 ‘먹다’만 공어휘화하는 의의에는 {얻음}에 속한 모든 의의들이 있다.

다음에는 ‘eat’과 ‘먹다’의 언어내적 범주화의 의미지도를 제시해 두 어휘의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의의와 차이점을 이루고 있는 의의를 살펴 보겠다.

3.2.1 의의들의 공통점

다음 3.3.1에서는 ‘eat’과 ‘먹다’가 함께 공어휘화하는 의의인 {몸으로 들여옴} 중에서도 <씹을 수 있는 것>을 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2.1.1 {몸으로 들여옴} : to put something into the body

중심의의 {몸으로 들여옴}은 다시 <삼키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씹을 수 있는 것>의 의의들은 영어 ‘eat’과 한국어 ‘먹다’가 모두 공어휘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 (4) a. We eat good food.
b.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는다.

(4a)의 예들은 한국어 (4b)와 같이 모두 함께 공어휘화 된다. 한국어 ‘먹다’와 영어 ‘eat’ 모두 본래의 의미가 보통 손을 이용하여 입 속으로 음식물을 넣고 혀와 이를 이용해 씹거나 잘게 부수는 과정을 포함하며 식도를 통해 배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언어 내적 범주화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며, 두 언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이나 문법적으로 모두 공어휘화 될 수 있다.

- (5) a. They are eating breakfast.
b. 그들은 아침을 먹고 있는 중이다.

(5a)는 음식을 먹어 몸 안으로 흡수하는 것을 실제로 겪어봤을 뿐만 아니라 ‘아침이나 점심, 저녁을 먹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5a)와 마찬가지로 (5b)도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의미를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았다.

3.2.1.2 {줄어들} : to have less

중심어의 {줄어들}은 <소비하는 것>, <침식하는 것>, <사라지는 것>, 으로 연결된다. 그 중에서도 <소비하는 것>의 <연료>만 한국어 ‘먹다’와 공어휘화한다.

- (6) a. An old car eats oil.
b. 낡은 차는 기름을 먹는다.

사람, 동식물과 같이 사물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로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스나 석유 등이 필요하다. 가스나 기름이 소비되어 사라지는 현상은 음식물이 먹는 행위로 의해 그 양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상태와 유사하다. 또한 국어사전에 ‘먹다’의 사전적 정의 중 ‘천이나 종이와 기름 또는 물감 따위를 빨아들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사물이 액체 따위를 빨아들여서 품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영어 ‘eat’과 한국어 ‘먹다’ 모두 공어휘화 한다.

3.2.2 의의들의 차이점

3.2.2에서는 의의에 따라 다의어 동사 ‘eat’과 한국어 동사 ‘먹다’가 각기 다르게 공어휘화 되고 있는 의의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 동사 ‘eat’만 공어휘화가 일어나는 {줄어들}, 의의에 따라 다르게 분류가 되는 의의인 {얼음}과 {몸으로 들여옴}에 대한 순서로 살펴보겠다.

3.2.2.1 {몸으로 들여옴} : to put something into the body

EAT의 의의 중 {몸으로 들여옴}은 영어 ‘eat’과 한국어 ‘먹다’의 공통 점으로 <씹을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삼키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의 경우 ‘eat’과 ‘먹다’의 차이점이다. <씹을 수 있는 것>과 <삼키는 것> 그리고 <들이마시는 것>의 의미적 차이는 섭취하는 신체적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 (7) a. I will *eat/drink the beverage/alcohol/water.
b. 나는 음료/술/물을 먹을 것이다.
c. 나는 음료/술/물을 마실 것이다.

한국어에서 ‘액체를 마시다’는 표현은 ‘먹다’로 흔히 사용된다. 그 이유는 물을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인간의 신체적 내부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어 ‘eat’은 치아를 통해 <씹을 수 있는 것>으로만 목적어가 한정하고, 액체를 먹는다고 하지 않으며 동사 drink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표현한다.

- (8) a. I don't need to *eat/take medicine/aspirin.
b. 나는 약/아스피린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c. 나는 약/아스피린을 복용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삼킬 수 있는 것> 중에서 ‘약’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먹는 것을 뜻하며, 고체로 만들어진 알약이든 물약이든 한국어 ‘먹다’와는 공어휘화하는 반면에, 영어 ‘eat’에는 공어휘화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영어 ‘eat’은 <씹을 수 있는 것>만 목적어도 가능하지만, 한국어 ‘먹다’는 목을 통해 <삼킬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더 확장되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영어에서 ‘약을 먹다’라는 표현은 동사 ‘eat’ 대신에 ‘take’ 동사를 사용하여 ‘take medicine’이라고 사용한다.

- (9) a. Did you *eat/inhale helium gas?
b. 당신은 헬륨가스를 먹었나요?
c. 당신은 헬륨가스를 마셨나요?

한국어 사전에서는 기체를 몸 안에 들여보내는 것도 ‘먹다’의 확장 의미로 기재하고 있고, 신체 중에서도 특히 코를 통해 <들이마시는 것>을 뜻한다. 영어 ‘eat’과는 공어휘화 하지 않는다. 영어에서는 ‘inhale’ 동사를 사용한다.

3.2.2.2 {줄어들} : to have less

EAT의 의의 중 {줄어들}은 어떤 대상의 모양이 망가지거나 양이 줄어들거나 끝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줄어들}은 <침식하는 것>, <소비하는 것>, <사라지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다시 <침식하는 것>은 <표면>과 <공간>으로 나뉘고, <사라지는 것>은 <소모되는 대상>과 <정신>으로 나뉘며, <소비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돈>만 한국어 ‘먹다’와 공어휘화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 (10) a. Acids eat metals.
b. 산은 금속을 침식시킨다.
- (11) a. Termites have eaten the posts and ruined the fence.
b. 흰 개미들이 기둥들을 갉아 먹어서 그 울타리를 못 쓰게 만들었다.

(10a)는 산이 금속을 먹어서 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금속의 표면이 산화 따위의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금속 화합물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다. (11a) 역시 흰개미가 기둥을 먹어서 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기둥의 표면이 흰개미에 의해서 질적으로 파괴가 된 상태를 뜻한다.

(12) a. The sea has eaten into the north shore.

b. 바다가 북쪽 해안을 침식했다.

(13) a. The river has eaten away its banks.

b. 그 강은 둑을 조금씩 계속 침식하여 없어지게 했다.

(12a)는 바다가 물과 공기의 작용으로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공간을 조금씩 줄어들게 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13a) 또한 강이 둑을 먹어서 소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하천 또는 호수의 물, 바닷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쌓은 공간이 조금씩 침식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표면>, <공간>은 영어의 'eat'과는 공어휘화가 일어나지만 한국어 '먹다'와는 공어휘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4) a. The forest was eaten by fire.

b. 그 숲은 불이 나서 사라졌다.

(15) a. The patient was eaten by disease and pain.

b. 환자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서서히 소모되었다.

(14a)와 (15a)는 수동태 구문으로 (14a)에서 숲은 불에 의해서 원래의 모양과 상태가 망가지고 양이 줄어들어서 결국 불에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15a)는 질병과 고통이 환자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병든 사람이 병과 아픔에 의해서 건강한 상태에서 점점 소모되고 있는 현상을 뜻한다.

- (16) a. She won't eat you.
b. 그녀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 (17) a. All the papers ate him.
b. 그 모든 논문들이 그를 괴롭혔다.

(16a)와 (17a)는 'eat'의 확장 의미가 사회나 인간의 영역까지 적용되었다.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는 행동이 아닌 누군가를 잡아먹을 듯이 무섭게 행동하여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군다는 뜻으로 질적인 파괴로 좀 더 추상적인 의미로 파생되어 나타난다. 즉,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에 의해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점점 고갈되어 없어져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16a)와 (17a)의 번역에 있어서 '먹다'보다는 한국어의 '괴롭히다'와 공어휘화를 이루고 있다.

- (18) a. This project is eating up all the money.
b. 이 프로젝트는 돈을 다 써버리고 있다.

- (19) a. Extravagant spending ate up our savings.
b. 과소비가 우리의 저축을 다 써버렸다.

(18a)와 (19a)는 본인이 지배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소비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8a)와 (19a)의 번역에 있어서 '먹다'보다는 한국어의 '써버리다'와 공어휘화를 이루고 있다.

3.2.2.3 {얻음} : to gain

EAT의 의의 중 {얻음}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하게 되거나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스스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먹음직스럽지 않은 음식이나 먹기 거북한 음식의 경우는 행위자의 의지나 의도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얻음}은 <행위 주체의 의지가 있음>, <행위 주체의 의지가 없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행위 주체의 의지가 있음>의 대상에는 <돈>, <등급>, <마음>, <관계>가 있고, <행위 주체의 의지가 없음>의 대상에는 <시간>, <꾸지람>이 있다. 이는 모두 영어 'eat'과 공어휘화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 (20) a. He *ate/embezzled public funds.
b. 그는 공금을 먹었다.

한국어 '먹다'는 주체의 의지를 통해 특정 대상물인 돈을 외부로부터 내부로 가져오는 것을 뜻하며, 돈과 관련된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익과 부정적인 돈으로 나뉜다. 영어의 'eat'에서는 목적어인 '돈'이 <소유하고 있는 돈>으로 다소 좁은 범위로 사용되지만, 한국어 '먹다'에서는 <이익>과 남의 재물을 다루거나 혹은 맡은 사람이 그 재물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정한 돈>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목적어가 사용될 수 있다.

- (21) a. I *ate/won the first prize in the intramural track meet.
b. 나는 교내 육상 대회에서 1등을 먹었다.

한국어 ‘먹다’에서 등급이나 점수를 받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역시 주체자의 의지를 통해 등급에는 합격, 일등과 같은 좋은 결과가 있고, 점수에는 구체적인 점수가 있다.

- (22) a. He *ate/decided to become a great scientist.
b. 그는 큰 과학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인간은 음식을 먹음에 따라서 본래 없었던 것이 몸 속에 새롭게 생긴다. 즉, 없던 마음이나 감정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이는 음식을 먹는 행위가 확장된 표현이다. 주로 본인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한 굳은 마음이 생긴 것, 감동을 느낀 것을 한국어 ‘먹다’로 나타낸다. 이 감정이나 마음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 (23) a. The student *eat/became friends with the foreigner.
b. 그 학생은 외국인과 친구를 먹었다.

한국어에서 ‘친구를 먹다’라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본인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관련이 없다가 관계가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24) a. He *eat/is two years older than I am.
b. 그는 나보다 두 살 더 먹었다.

한국어 ‘먹다’에서 나이 드는 것과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주체의 의지 없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와 세월은 시간적인 개념을 대상화한 것으로, 인간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이 이치에 맞게 늙음이라는 신체적 변화를 겪는다.

(25) a. He was *eaten/reviled by his friends.

b. 그는 친구들에게 욕을 먹었다.

한국어 ‘먹다’에서 ‘욕을 먹다’는 듣고 싶지 않은 말 또는 편견 따위를 듣거나 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적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주체 의지 없이 물리적, 신체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서 확장하여 언어적인 불이익까지 확장되어 사용된다. 이 역시 한국어 ‘먹다’만 공어휘화하고, 영어에서는 curse, insult 등의 동사로 사용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어휘유형론의 틀 속에서 영어 동사 ‘eat’와 한국어 ‘먹다’의 어휘의미지도를 그려보았다. 또한 영어 ‘eat’과 한국어 ‘먹다’의 의미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동일한 수식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영한 대조 분석의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영어 ‘eat’과 한국어 ‘먹다’의 어휘의미지도를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보았듯이 언어내적 범주화의 영역이 다르다. 두 동사의 내적 범주화시킨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어휘화를 나타낸 것은 {몸으로 들여옴}의 의의 중 <씹을 수 있는 것>과 {줄어들}에서 <소비하는 것>중에서도 <연료>에 해당하는 대상들만 영어 ‘eat’과 한국어 ‘먹다’의 공어휘화를 이룬다. 반면에 차이점으로는 {줄어들}의 의의에서 <침식하는 것>, <소비하는 것>, <사라지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 중 <소비하는 것>에서 <연료>를 제외한 모든 의의는 한국어 ‘먹다’와 공어휘화되지 않는다. 또한 {언음}의 의의는 한국어 ‘먹다’만 공어휘화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몸으로 들여옴}의 의의 중에서 <삼키는 것>, <들이마시는 것>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한국어 ‘먹다’만 공어휘화를 이룬다.

지금까지 영어 동사 ‘eat’와 한국어 ‘먹다’의 의미지도를 François(2008)의 어휘 유형론을 토대로 영어 동사 ‘eat’와 한국어 ‘먹다’의 중심의의를 구분하여 공어휘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의미지도로 완성하여 ‘eat’과 ‘먹다’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중심의의를 여러 번 수정하여 의미지도를 어떤 의의를 선택하여 출발점을 삼아도 같

은 세 가지 연구 절차를 따르면 의미지도의 모양이나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최종 결과는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의의들 중 하나의 의의를 선택한 후, 출발점으로 하여 언어외적 기준망을 구성하는 과정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중심의의를 중점 개념으로 사용하여 François(2008)의 이론의 절차에 따라 언어외적 기준 연결망을 완성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다룬 동사 EAT의 언어외적 기준 연결망은 영어와 한국어의 두 단어를 기준으로 언어 분석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어와 한국어 동사의 비교 연구는 나중에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새롭게 의의가 추가되면 지금까지 작성된 의미지도의 형태는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가 다양한 언어들의 분석을 통해 EAT의 보편적인 의미지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며, 또 다른 어휘 의미 지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 강도연. 2019. 「다의어 동사 ‘push’와 ‘밀다’에 대한 어휘유형론」.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김수인. 2014. 「영어와 한국어의 ‘먹다’ 관련 개념적 은유의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은일. 2018 「문화간 의사소통과 언어」.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_____. 2017. He won his wife in a card game: WIN의 의미지도. 「새한영어영문학」. 59(4), 173-196
- _____. 2016. 다의어 동사 ‘open’과 ‘열다’에 대한 어휘유형론적 접근. 「현대문법연구」. 91, 167-187.
- _____. 2015. 언어유형론 및 어휘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한 번역에 나타난 수동태의 변조. 「현대문법연구」. 83, 61-79.
- 김효진. 2019. 「다의어 동사 ‘lose’와 ‘잃다’에 대한 어휘유형론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송미소. 2020. 「동사 ‘sell’과 ‘팔다’에 대한 어휘유형론」.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송부숙. 2019. 「영어 형용사 ‘light’와 한국어 대응표현 ‘가볍다’의 의미지도」.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이기동. 2015. 「인지문법에서 본 영어동사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정희란. 2019. 동사 ‘break’와 ‘깨다’의 어휘 의미지도. 「인문사회과학연구」. 3, 258-310.

- Davies, M. and D. Gardner. 2010. A Frequency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Word Sketches, Collocates, and Thematic Lists. London: Routledge.
- Fillmore, C. J. and B. T. S. Akins. 2000. Describing Polysemy: The Case of 'Crawl.' In Y. Ravin and C. Leacock (eds). Polysemy: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91-11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çois, A. 2008. Semantic Maps and the Typology of Colexification. In M. Vanhove (ed). From Polysemy to Semantic Change, 163-215.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eeraerts, D. 1993. Vagueness's Puzzles, Polysemy's Vagaries. *Cognitive Linguistics* 4, 223-272.
- Haspelmath, M. 2003. The Geometry of Grammatical Meaning: Semantic Maps and Cross-linguistic Comparison. In M. Tomasello (ed).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 (Vol. II), 211-24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rlich, B., Z. Todd, V. Herman and D. Clarke. (eds). 2003. Polysemy: Flexible Patterns of Meaning in Mind and Language: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Riemer, N. 2005. *The Semantics of Polysemy: Reading Meaning in English and Warlpiri*: Berlin: Mouton de Gruyter.
- Rosch, E. 1973.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328-350.

참고 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 <https://ko.dict.naver.com/>.

「네이버 영어사전」 . <https://en.dict.naver.com/>.

「다음 영어사전」 . <https://en.dict.daum.net/>.

「Cambridge 영영사전」 . <https://dictionary.cambridge.org/>.

「Collins 영영사전」 . <https://www.collinsdictionary.com/>

「Dictionary 영영사전」 . <https://www.dictionary.com/>.

「Longman 영영사전」 . <https://www.ldoceonline.com/>.

「Macmillan 영영사전」 . <https://www.macmillandictionary.com/>.

「Merriam-Webster 영영사전」 . <https://www.merriam-webster.com/>.

「Oxford 영영사전」 .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The Free Dictionary 영영사전」 . <https://idioms.thefreedictionary.com/>

코퍼스 사이트

「COCA」 . <https://corpus.byu.edu/coca>